김정은 사망설은 왜 반복되는가

하승희(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사망설의 확산과 의혹의 재생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SNS 를 통해 확산됐다. 발단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의 게시물이었다. 그는 2026 년 10 월 19 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김정은이 심각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북한 내 의료시설의 한계로 중국 베이징의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끝내 사망했고, 시신은 북한으로 은밀하게 운구됐으며, 북한 당국이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1] 중국 당국이 금지한 단체인 '중국민주당'의 주석을 자처하는 셰완쥔은 과거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1 谢万军 Wanjun Xie, X 게시물, https://x.com/WanjunXie/status/2112004457735016462 (검색일: 2026.10.19.)

있다.[2] 그럼에도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번 주장은 해외 언론과 SNS 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사망설이 제기된 직후인 10 월 20 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날인 19 일 딸과 함께 '전국 피복, 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한 모습을 공개했으나,[3] 셰완쥔은 이 사진 역시 김정은 사망설을 반박하기 위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도 '소문에 따르면', '전해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주장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4] 이어 10 월 21 일 북한의 국가도메인인 '.kp'를 사용하는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40 여 개 대외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속장애가 발생하자, 이를 '북한 내 대규모 인터넷 차단 사태'로 규정하고 북한 언론과 정부기관이 혼란에 빠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5] 나아가 이러한 정황을 김정은 사망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조작된 조선중앙 TV 의 김정은 사망 보도 화면을 실제 보도처럼 인용하며 사망 소식을 전하기에 이르렀다.[6]

---

2 권수현. 2026. "근거없는 김정은 사망설 해외 SNS 유포…온라인 한때 '시끌'". 〈연합뉴스〉 10 월 20 일.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로동신문」, 2026. 10. 20.

4 谢万军 Wanjun Xie, X 게시물, https://x.com/WanjunXie/status/2112366943021760868 (검색일: 2026.10.20.)

5 谢万军 Wanjun Xie, X 게시물, https://x.com/WanjunXie/status/2112845078599213321 (검색일: 2026.11.09.)

6 谢万军 Wanjun Xie, X 게시물, https://x.com/WanjunXie/status/2112850207838966169 (검색일: 2026.10.21.)

〈그림 1〉 셰완쥔이 SNS 에 게시한 김정은 사망 관련 조작 이미지



출처: 谢万军 Wanjun Xie, X 게시물 (2026. 10. 21.)

이후 국가정보원 역시 10 월 23 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김정은 사망설이 허위라는 판단을 전달했다.[7] 그러나 김정은의 건재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된 인물이 김정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른바 '대역설'로 이어졌다. 여기에 조선중앙통신이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8] 또 다른 추측이 제기됐다. 특히 김정은이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김여정의 현장 시찰 모습이 부각되자, 이를 김정은의 신변 이상이나 김여정의 역할 확대, 나아가 권력승계 가능성과 연결하는 해석들이 등장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대역설로, 김여정의 공개활동은 권력변동설로 이어진 것이다. 서로 다른 공식 보도가 사망설을 해소하는 근거가

7 이정현·조다운·오규진. 2026.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연합뉴스〉 10 월 23 일.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원수 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의 주요지점들을 현지시찰", 「조선중앙통신」, 2026. 10. 21.

되기보다 기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재해석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새로운 추측을 낳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복되는 사망설과 정보 유통의 변화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6년 김일성 피살설은 김일성이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오보로 드러났으며, 2008년에는 김정일의 정권수립 기념행사 불참을 계기로 뇌졸중 등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2014년 40여 일간의 공개활동 중단과 2020년 태양절 행사 불참을 계기로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됐으나, 이후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사망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는 체중이 감소한 모습으로 등장하자 건강이상설에 이어 대역설까지 제기됐다.[9]

이처럼 북한 지도자가 일정 기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나 신체적 변화가 관찰될 때마다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추측은 지도자 개인의 신변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승계와 내부 권력투쟁, 쿠데타와 체제 불안정 가능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실제 건강 문제의 전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권

9 장용훈. 2008. "北김정일, 9.9 절행사 불참..건강이상설 증폭(종합)." 〈연합뉴스〉 9 월 9 일.; 이승우·류미나. 2014. "국정원 "김정은 9~10 월 발목 낭종제거…재발가능성"(종합)." 〈연합뉴스〉 10 월 28 일.; 강병철. 2020. "사망설·독살설·대역설…통일부가 꼽은 北 관련 '오보의 역사'." 〈연합뉴스〉 5 월 3 일.; 정재민·이준성. 2021. "국정원 "AI 분석하니 김정은 20 ㎏ 감량, 건강 이상무…대역설 사실무근." 〈뉴스 1〉 10 월 28 일.

력승계 구조는 이러한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지도자가 다시 공개활동에 나서더라도 사망설이 해소되는 대신 대역설과 같은 새로운 의혹이 등장하는 현상은 단순히 북한의 정보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려는 인식의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에 따라 북한 지도자 사망설의 유통 경로와 확산 방식은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외교가나 정보당국, 익명 소식통 등을 통해 전해진 주장이 언론 보도를 거쳐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이 SNS에 게시한 미확인 주장도 언론의 보도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정보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외교 관계자, 정보당국, 군 관계자, 중국 측 인사 등의 주장은 정보원의 지위나 접근 가능성 때문에 신뢰를 얻기도 하지만, 정작 최초 출처와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보원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보의 유통 경로와 확산 속도는 달라졌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북한 내부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북한의 정보 공개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의 신변과 주요 권력층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북한 공식 매체의 보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개하는 사진과 영상, 보도 시점과 내용은 사망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그러나 북

한 당국은 공개할 정보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 보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인 동시에 북한의 정보 제공 전략이라는 맥락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보 공개와 대외 미디어 대응 방식이다. 북한은 공식 매체뿐 아니라 인터넷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도자의 활동과 국가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전달해 왔다. 지도자의 공개활동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방식은 외부의 추측과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사망설 직후 공개활동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당국이 해당 소문을 의식해 대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도를 판단하려면 소문이 제기된 시점과 북한 매체의 보도 시점, 기존 보도 관행과 보도 내용의 변화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 정보 제공은 외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제한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지속되지만, 외부 이용자가 북한 당국에 직접 질의하거나 정보의 진위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소통 경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이 외부의 정보 환경과 단절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대외 매체 운영과 공식 보도는 외부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응과 정보 유통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북한이 외부 정보 환경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나 외부의 소문에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해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북한은 대내외 정보 전달의 대상과 목적을 구분해 왔으며, 공개 여부와 시점, 매체와 표현 방식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소문에 즉각 반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침묵을 유지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의 정보 공개와 미디어 대응은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과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언비어가 확신이 되는 과정

북한에 관한 유언비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의 사실관계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북한의 정보 비대칭성과 폐쇄성, 지도자 중심의 권력구조 속에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수요는 지속된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유인이 결합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생산되고 확산될 수 있다.

북한 내부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통의 특성도 이러한 문제와 연결된다. 양무진은 주요 대북 소식통으로 탈북자 및 북한 주민과 연계된 인사,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업자, 현지 사정에 밝은 중국인과 조선족, 북한 방문 외국인 등을 제시한다. 이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출처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어렵고, 정보 제공에 경제적 보상이나 특정한 목적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10]

SNS의 확산은 유언비어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신뢰를 얻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이 제기한 주장이라도 조회수와 공유 횟수가 증가하고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면, 정보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신뢰할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보도가 SNS에서 다시 공유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출처의 주장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 정보처럼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정보의 반복적인 노출과 확산은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과 별개로 주장의 신뢰

[10] 양무진. 2020.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형, 유통과 대응 방안.” 『현대북한연구』, 23, 2: 100.

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인식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확증편향이 더해지면, 반대되는 증거가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유언비어는 때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과정에서 생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소문의 진위 여부가 아닌 불확실한 정보가 어떤 경로와 해석을 거쳐 확신으로 바뀌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예측의 한계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김정은 사망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과 실제 지도자 유고 또는 권력 공백에 대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확인되지 않은 사망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비 계획까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사망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도자 유고와 권력승계에 관한 대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최고지도자의 유고는 권력승계와 내부 통치체계, 군사적 지휘체계, 대외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대응이 나타날지, 주변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승계나 권력투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복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사망설이 사실이 아닌 경우와 실제 급변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회적 불안과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

록 정보 검증과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 북한 내부의 권력변화와 군사적 동향, 접경지역의 안정성, 주변국의 정책 및 군사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사실 확인과 정부의 위기 판단, 관계 부처의 대응 준비를 구분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허위 영상과 음성, 기획된 선전 콘텐츠가 확산되면 북한 관련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출처와 제작,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과 분석, 추론과 가능성을 구분하는 역량이 중요해진다. 동시에 특정한 전망에 대한 확신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에 관한 예측은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를 사실로 단정하거나 특정한 전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확증편향을 경계하는 태도와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정책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

■ 저자: **하승희**_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담당 및 편집: **송채린**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11) | crsong@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발행일 2026년 11월 10일 979-11-7584-179-6-95340
"김정은 사망설은 왜 반복되는가"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